



세계 속의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과 양성평등의 의미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 되었는데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루트거스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가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그 후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는 여성들이 지위향상과 남녀 차별의 폐지, 여성빈곤 타파 등 여성관련 운동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3월 8일을 세계적인 여성의 날 기념대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유엔(UN)이 정한 날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한국 “여성의 날”도 1984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매년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의 고용, 실업문제 해결 등 여성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서울 청계광장, 코엑스 오디토리움 등에서 다양하게 개최되어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2015.7.1.)에 따라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기간을 맞아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출처:두산백과-세계여성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반은 여성, 그 나머지 반은 남성,
서로 행복한 세상속... 양성평등을 함께 배우자!